1. 출국 전 준비과정

비자발급	필요 서류	X		
	소요 시간	X		
	비용	X		
항공권	구입시기	파견 2개월 전		
	구입처	루프트한자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구입가격	1,423,600 원		
	여정	인천(ICN) ➡ 프랑크푸르트(FRA) <직항 탑승> 프랑크푸르트(FRA) ➡ 인천(ICN) <직항 탑승>		
출국	프로그램 시작일	2025년 7월 7일	프로그램 학기종료일	2025년 7월 25일
	출국일	2025월 7월 4일	귀국일	2025년 7월 30일
	보험시작일	2025년 7월 4일	보험종료일	2025년 7월 30일
보험	비용	EUR 48.33		
	형태	☐ 국내 가입 ☑ 국외 가입(파견대학 보험) ☐ 국내 + 국외가입		
출국 및 도착	이동 수단	☐ 공항 철도 ☐ 버스 ☐ 지하철 ☐ 현지 픽업 ☑ 기타 (DB)		
	비용	EUR 46.99 (편도) ★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많이 상이함 !		
	시간	프랑크푸르트 → 오스나브뤼크 (3시간 소요)		
픽업서비스	☑ 있음 ☐ 없음			

2. 현지 수학 내용

수업	이수 과목 (전체)	과목명	수업 진행 방식
		- German Language Class A1.1	강의식 (다만 한 강의에 학생수가 많지 않아 거의 소수 정예처럼 강의 진행 → 발음이나 사소한 실수 꼼꼼하게 잡아주셨음)
	추천 수업	과목명	사유
		•	•
수업 외 학교 생활	기타 프로그램	캠퍼스투어, 학교 주변 투어 프로그램	
	추천 활동	★ 현지 주변 타 역지 관광 프로그램	

3. 현지 생활 내용

현지생활	수업 환경	- 아침 8시 ~ 12시 - 강의 마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교수님이 학생 한명한명 신경써서 강의해주심 - 캠퍼스 강의실을 돌아가면서 사용
	생활 환경	-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 - 외식비가 부담될 때는 마트에서 장봐서 집에서 끼니 해결 - 버스가 외곽까지 잘 되어있지만 배차간격이 조금 있음 - 늦은 시간까지 밖에 다니는건 조금 위험, 노숙자들이나 유흥가 주변으로는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

4. 귀국 준비 및 과정

귀국 전 준비	비용	- 96,700원 <eSIM 구매>

	기타	- 도난 방지 스트랩 구매 <소매치기 방지> - 한국에서 30만원 환전 (은근 현금을 사용해야하는 곳이 많음) - 나머지 돈은 <트래블러스 카드> 발급 받아서 사용 은행 앱에서 환전 우대 받아서 현지 유로 결제 가능 - 1달이라 한국 보험, 휴대폰,은행 등은 따로 계약 해지하지 않음
귀국	여정	프랑크푸르트(FRA) ➡ 인천(ICN) <직항 탑승>

5. 자기 평가 및 건의사항

파견 전후 변화	**학습 측면**	※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많이 대화하면서 복습한 점이 참 좋았음. 모르는 내용도 다시 알게 되었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비학습 측면	※ 다른 학교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서 내가 모르는 다른 문화들을 새롭게 접하고 처음보는 외국 학생들과 잘 대화하는 법도 배운것 같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잘 모르고 완벽하지 않은 언어를 무섭지만 자꾸 입으로 뱉을 수 있는 자신감이 가장 소중하다.
건의사항	•	

6. 기타

※ 생각한거보다 엄청 크게 다르진 않다. 조금 불편했던 점은 독일은 탄산수를 마셔서 마트나 매점에서 논스파클링 물을 고르는게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두번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잘 고를 수 있다 ! 그리고 한국음식이 생각보다 많이 그리웠다. 독일은 빵이 주식이라 밥을 먹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햇반을 꼭 들고가길 바란다! 쌀을 팔긴 하지만 밥솥도 없고 냄비밥을 해먹어야 해서 번거롭다. 그리고 상비약도 꼭 챙겨가는게 좋은 것 같다. 약국에 가서 1달 외국 간다고 하면 잘 챙겨주신다. 그리고 날씨가 여름인데도 생각보다 쌀쌀해서 목이 칼칼하고 아팠던 날이 좀 많았어서 가을옷,여름옷 반반 챙기는걸 추천한다. 그래서 감기약을 2통 사가는걸 추천. 그리고 세탁할 때 캡슐 세제가 엄청 간편하고 좋았다. 세제,섬유유연제가 함께 들어가 있는걸 들고 감.
세탁망도 꼭 들고가는 것을 추천! 빨래 담아두고 그대로 넣어서 세탁하기 용이함, 만약 본인이 짐이 많다면 샴푸나 바디워시 등도 현지에서 사는 것을 추천 ! 다 쓰고 현지에 버리고 오면 편함.
예민한 사람이라면 본인거 들고가서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함. 만약 물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여행용 샤워기 필터도 추천함! 물이 생각보다 비싸서 집에서 물을 제공해주신다면 텀블러 잘 챙겨다니기.

7. 현지 사진 6장

	
홈스테이 집에서 직접 요리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설명	***설명***
설명	***설명***